

관광산업 포럼, 마이스 행사로 개최

전북도는 26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전라북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관광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지역관광 관련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 공론화하는 자리로 매회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순회하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문체부, 도 및 시군, 학계, 지역 관광협회 및 관광업계 및 등 80여명이 참석,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통해 본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전주, 군산, 부안, 고창)과 '한국 공연관광의 발전 방향' 두 가지 주제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인구이동 및 매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 자료를 통해 전라북도 관광 패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난타 및 원주 댄스 카니발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 공연관광 발전 방향 주제 포럼 후 참가자 대상 전북투어패스 카드 체험 · 홍보 도정 업무관련 중소기업 회의 등 행사 유치 노력 지속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의 전통문화와 예술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

포럼 후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와 발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특별할인가맹점 할인혜택 등 전북투어패스 카드를 체험하며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보며 전북도의 선진 관광시스템을 홍보했다.

이번 포럼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인 동시에 마이스(MICE)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마이스

라고 하면 흔히 코엑스, 킴엑스 등 대형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떠올리지만, 호텔 연회장 및 무주태권도원,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행사도 중요하다.

이러한 작은 규모도 지역관광(포스트 투어)이 연계되기 마련이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이들 네 분야를 포괄하는 서비스산업을 의미한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가 아직 없는 전북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행사 유치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및 워크숍 등의 행사를 마이스의 일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활용할 방침이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달 개최되는 무주 산골영화제 등 다양한 공연,예술 콘텐츠와 전북투어패스 카드 등 관광 인프라를 잘 엮어 전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및 관광업계 종사자가 힘을 모아 작은 행사부터 유치해 나간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기업 모집

7월 말까지 접수... 10월 19~23일 개최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제15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7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국내·외 주요 식품기업과 바이어, 식품연구기관 등이 대거 참여해 발효 신제품과 기술정보, 최신 산업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박람회이다.

특히 참여 기업들에게 무역상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활용한 마케팅과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발효식품엑스포는 지난해 22억여원의 현장매출 실적을 올리는 등의 성과를 이뤄내 지방 식품 전시회로는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인증 전시회에 6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식품메카로서 전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 대표 국제행사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20개국 370여 부스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수 전통식

품과 트렌드를 반영한 R&D 기반 제품의 참여 비율을 높여 이전보다 더욱 다채롭고 이색적인 상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생진원에서는 올해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품 전시기법 및 전시회 운영 요령, 바이어 상담 방법 등을 교육하는 참가업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엑스포 홈페이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홍보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B2B 수출구매상담회를 위해 국내외 참가 바이어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올해 발효엑스포는 기업, 바이어, 참관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엑스포가 되기 위해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오는 10월 19~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진성 기자

도, '정부, 세계잼버리 유치 지원'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전북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최근 전북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급 회의를 열면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잼버리 유치와 관련해 "그동안 국정공백으로 부족했던 유치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논의를 하면서 새만금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폴란드와 경쟁을 벌이는 유치전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더욱 결집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



긴급구조 종합훈련 지난 26일 원주군 봉동읍 KCC 3공장에서 전북소방본부와 전주 덕진소방서 주관으로 열린 2017 전북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송하진 도지사가 훈련 참가자를 격려하고 있다.

국토정보공공, 홍보자문위원 위촉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난 26일 서울지역본부 7층 회의실에서 대국민 소통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제4기 홍보자문위원' 6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김진석(방송)·백영선(SNS)·정정호(디자인)·류찬희(언론)·허진호(영상)·양슬휘(마케팅)씨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LX홍보자문위원회의는 대국민 소통과 홍보전략 수립, SNS 등을 활용한 양방향 홍보 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관련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홍보방향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뉴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3공구 대립산업 · 4공구 SK건설... 30일부터 5개월간 실시설계 · 11월 본 공사

새만금개발청은 25일 남북도로 1단계 건설 공사(3.4공구)의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북도로 1단계 3공구는 대립산업이, 4공구는 SK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남북도로 1단계 사업은 총연장 12.7km(3공구 3.0km, 4공구 9.7km)를 6~8차선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적격자가 선정됨에 따라 30일부터 5개월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17년 11월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남북도로 1단계 건설 공사는 2016년 11월 3일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총 134일간의 기본설계를 거쳐 기본설계 기술제

안서 심의(5.18~20)와 가격입찰 심의(5.24~25)를 했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때 설계에서 시공(건설), 기기 조달, 시험 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건설업체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 완료 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김진성 기자

국정기획위, 문체부 구태 '발본색원' 촉구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과거의 여드웠던 기억을 발본색원하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밑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정책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정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일반인들이 권리로서 누려야 될 문화체육에 대한 함의가 마치 특권층이 다 점유하는 것처럼 인식이 확산돼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자문위원(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은 사람 중심, 국민 중심"이라며 문체부의 국정 방향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문화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게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새 국정 방향도 함께 언급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문화정책 기조 아래 새 정

부 하에서 확실하게 관철돼야 하는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최순실 게이트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화 예술 근본이 되는 독립성 창의성 다양성 훼손하는 낡은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해야겠다"며 "예술인과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 토대로 완전히 혁신하는 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예술인의 창작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고 복지제도를 포함해 창작의 여건을 전폭적으로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잡아야겠다"며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있어 국민이 누릴 권리를 전면적으로 신장시키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국민생활문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문화산업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참여 폭을 넓히고 또 문화산업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지역문화 분권의 실질적인 지평을 여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